



## 연중 제15주일(7월 16일)

###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마태 13,1-23)



#### 씨 뿌리는 사람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해가 솟아 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마태 13,4-6,8)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물질이나 욕망으로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하며 삶 안에서 실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곧, 관대한 삶, 진정한 자유와 기쁨,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7. 13.)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56번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 마음 속에 머무르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12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18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20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21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22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마태 13,25)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는데 방해받고 있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마태 13,19)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는 그 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좋은 씨를 잘 골라 내어야 하고, 뿌리기 전에 씨를 관리하고 발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한 다음에 땅을 갈고 고른 뒤에 그 위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에 나오는 농부는 하느님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씨는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에 앞서 좋은 씨들만을 모아 뿌리듯이,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좋은 것들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다음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좋은 것들을 담아주신 좋은 씨앗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좋은 것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땅 안에 머무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안에 머무르는 삶,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담긴 이 좋은 것들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좋은 것들이 큰 축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땅 안에서 잘 머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00번 “열렬하신 주의 사랑”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